

# 순풍에 돛단 '제로페이'... 가맹점·결제액 등 몸집 커졌다

5월말 기준 가맹점 91만곳 돌파  
누적 결제액 2兆... 올 3조 목표  
법인·모바일상품권 등 영역 확장  
위챗페이 등과 연동해 글로벌화

〈제로페이 누적 현황〉

구분	가맹점	누적 결제액
2018.12	15,505곳	3000만원
2019.06	251,990곳	140억원
2019.12	324,002곳	768억원
2020.06	569,395곳	4,969억원
2020.12	729,313곳	1조1529억원
2021.05	913,079곳	2조796억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가 무한확장하고 있다.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누적 결제금액도 덩달아 커지며 생활 결제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면서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등과 같은 정책 자금 집행 수단으로도 제로페이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또 중국 위챗페이 등과 연동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곳곳에 있는 제로페이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도 도약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몸집이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갈수록 폭폭해지고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지

난 5월 말 기준으로 제로페이가 가맹점은 91만3079곳까지 늘었다.

2018년 12월 당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듬해 12월 말엔 가맹점이 32만 곳을 넘어섰더니 지난해 12월 말엔 73만 곳까지 육박했다. 그후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만 가맹점'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적 결제금액도 영업월이 고작 1개월에 그쳤던 2018년 당시에는 3억원에 머물렀지만 2019년 12월 768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엔 1조1529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말까지 2조796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대 벽을 넘어섰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올해 연말까지 가맹점수 120만개, 누적 결제금액 3조원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라면 올해 목표했던 수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간편결제진흥원의 관측이다.

또 값비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응,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목으로 시작한 제로페이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5만 여개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 8억원 미만이 87.8%로 당초 출범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카페, 세탁소,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전통시장내 상점 등이 제로페이가 가맹점 명단에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또 제로페이를 활용한 직불결제 참여 은행만 22곳에 달하고, 현재 준비중인 곳을 포함해 26개 전자금융업자들이 제로페이 서비스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제로페이와 연동해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앱도 티머니, 하나멤버스, 스마일페이, 비플제로페이, 페이코, 리브 등으로 다양하다.

결제서비스도 곳곳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개인들의 직불·선불 결제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용 직불·선불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해외 제로페이 등으로 확장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 약 56만명에게 스마트폰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도 제로페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GS25, CU 등 6개 편의점 브랜드 가운데 서울시에 있는 881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나트륨이 많거나 에너지(kcal)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음료는 구매할 수 없는 등 바우처 사용 대상을 엄선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은 "편의점에서 휴대폰 속 제로페이를 이용해 간식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좋다"면서 "다만 평소에 친구들과 많이 사먹는 제품 중엔 바우처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어 그게 좀 아쉽다"고 전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지급한 51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0% 가량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편결제진흥원측은

사용 기간을 좀더 늘리고, 학생 외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우처가 좀더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들이 자국의 'OO페이'를 한국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로페이가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중국 위챗페이측 요청으로 이미 제로페이와 연결한 융합 결제가 가능해졌고 중국 알리페이, 태국 프롬프트페이, 말레이시아 그랩페이 등과도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은 편의점, 전통시장 등 현재 70만곳이 넘는 제로페이가 가맹점에서 소액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간편결제진흥원 문효주 본부장은 "후불 신용카드처럼 후불 제로페이 결제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하나카드와 MOU를 해 애플카드인 '하나1Q페이'와 연동한 제로페이의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연결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먼저 제품을 구입한 뒤 결제일에 맞춰 후불로 결제를 하면돼 보다 편리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진공,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

코로나 피해기업 정책자금 지원  
한국판 뉴딜 추진 기여 등 인정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 중소기업생태계 유지에 기여했다.

또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해상물류비를 긴급지원했고, 국내 최초로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연계한 P2P 체계를 구축해 4억6400만 달러의 온라인수출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50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스마트공장배움터를 구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진공은 올해 기관과 중소기업

의 경영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경영혁신 방향인 ▲디지털 혁신 ▲지역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혁신 뿐만 아니라 ▲친환경·그린 혁신을 네 번째 방향으로 추가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ESG경영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사진)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신속한 위기극복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ESG경영 전환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고, 지역기업과 주력산업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창업진흥원장(왼쪽)이 지난 18일 처음 실시한 캐주얼데이에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창진원

## 창업진흥원 "매주 금요일은 '캐주얼데이'"

관행적 조직문화 개선 등 도모

창업진흥원이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내부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 진작을 위해 '캐주얼데이'를 실시한다.

20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정장 대신 청바지 등 캐주얼한 복장으로 출근해 더욱 편안한 분위기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관행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데일로 정했다.

정장에 익숙해져 있던 임원들도 솔선 수범해 캐주얼데이 첫 시행일인 지난 18일에 편안한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 또 첫 공식 시행인 만큼 직원들도 캐주얼웨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경영위기·재도약 기업 위해 팔 걷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통해  
경영 활로 모색, 재창업자금 등 지원

활로를 찾아주고, 재창업자금을 통해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등 사회안전망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민간 구조조정 사각지대인 소규모기업의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협력은행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파산·회생전에 구조개선 계획 수립 비용과 신규대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50개사, 25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15개사 107억원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 플랫폼 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새로 열었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상담플랫폼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플랫폼에서는 PC와 모바일 웹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전문위원을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분야별 상담사례도 검색할 수 있다. 상담플랫폼을 통해 전문위원 정보 검색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전화·대면상담 예약·접수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한국 의협 지지"  
▲ 野 잠룡 김동연 "국민의힘 입당 말 할 적절한 때 아냐" /사진 뉴시스

▲ 이광재 의원 "원희룡이 윤석열보다 낫다"  
▲ 정세균 측 "경선 시기 논의 거부는 당헌에 위배"



▲尹대변인 이동훈, 10일 만에 사퇴... 내부균열 조짐  
▲"북미대화 재개 前 김정은 방중 가능성... 7월 유력" 관측 /사진 뉴시스